

## ○ “인산·칼슘 증가… 지하수 오염 우려” (한라일보: 2022년 5월 2일, 5면)

도농업기술원, 제주 서부지역 밭 토양 변화 분석

# “인산·칼슘 증가… 지하수 오염 우려”

한경면·한림읍·대정읍 등 제주 서부지역에서 유효인산과 교환성칼슘 등이 과다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서부지역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.

1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밭 토양의 양분상태 변화 조사 결과 서부지역에서 유효인산과 교환성칼슘 등에서 적정범위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밭 토양 조사 사업은 일반 농경지의 비옥도 유지와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토양 양분(유효인산, 교환성칼슘 등)의 변화를 조사하는

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4년 주기로 도 일원에서 140개 지점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. 2021년 조사 결과, 토양 유효인산은 적정범위(300~550mg/kg)보다 낮은 부족 비율이 55%, 적정범위보다 높은 과다 비율 31.4%, 적정범위 13.6% 순으로 인산고정능이 높은 화산회토 특성으로 인해 부족 비율이 높았다. 그러나 2001년과 비교해 보면, 유효인산 부족 비율은 2001년 63.3%에서 감소했으나 과다 비율은 2001년 15.8%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(구좌·성산·표선)의 평균 유효인산 함량

은 93mg/kg로 적정범위에 비해 낮았으나 서부지역(한경·한림·대정)은 적정범위보다 높은 611mg/kg으로 과다비율이 2001년 34.8%에서 2021년 58.3%로 약 1.7배 증가했다.

교환성칼륨 및 칼슘은 과다비율이 각각 67.9%와 55.7%로 2001년 수치와 비교하면 교환성칼륨은 차이가 없었으나 교환성칼슘은 과다비율이 증가했다. 특히 서부지역 과다비율이 2001년 45.7%에서 2021년 62.5%로 약 1.4배 늘어났다.

제주지역 밭 토양은 지역 차이는 있으나 유효인산과 칼슘의 과다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. 고대로그자